



보도 일시	2022. 8. 20.(토) 18:20	배포 일시	2022. 8. 20.(토) 18:2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준호 (044-203-2511)
		담당자	사무관 김혜진 (044-203-2512)

“이후백 선생은 관료 리더십의 본보기”

- 문체부 박보균 장관, 청련 이후백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석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8월 20일(토), 연세대학교 대우관 각당헌에서 열린 ‘청련 이후백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한국계보연구회와 연안이씨 청련공파도문회는 조선 중기 대표 청백리이자 학자이며, 경세가인 청련 이후백 선생(1520~1578) 탄신 500주년을 기념해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후백 선생의 관직 생활과 시문, 가풍 등을 다뤘다.

박보균 장관은 축사에서 이후백 선생의 삶을 “부정과 타협하지 않는 공직자, 인사 운영의 탁월한 리더십, 국민 통합의 실천가, 뛰어난 학문적 성취, 글을 잘 쓰는 문장가”라고 축약하면서, 그의 삶이 펼쳐내는 드라마가 5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모범과 교훈으로서 유효하게 작용하여, 관료 리더십의 정신적 본보기(롤모델)가 됨과 동시에, 그의 학문적 글들이 인문학적 상상력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후백 선생의 삶과 글의 영향력을 평가했다.

붙임 축사 전문

따로 붙임 현장 사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입니다.

오늘 우리는 500년 전 한 시대를 풍미하고 압도한 걸출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청련공 이후백의 삶은 모범과 교훈이 독보적인 서사시입니다. 청련공의 삶을 추적해봤습니다. 그 끊임없는 자기 절제와 경계, 학문적 수련과 내면의 단련, 엄격하면서도 세밀하게 세상사를 다루는 처세. 거기엔 긴장감이 흐르지만 때로는 따뜻함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선생은 오랜 세월 추앙받고 기려졌습니다. 저는 그런 존경스러운 드라마를 이렇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부정과 타협하지 않는 공직자, 인사 운영의 탁월한 리더십, 국민 통합의 실천가, 뛰어난 학문적 성취, 글을 잘쓰는 문장가". 그런 모습이 이후백 선생의 삶을 오늘 제가 소환한 이유입니다. 선생은 도승지, 대사간, 이조판서, 형조판서 등을 지냈습니다. 돋보이는 형식과 문장을 바탕으로, 최고의 정치가, 행정가로 활약했습니다.

조선 시절은 관료의 전성기였습니다. 인재 등용과 발탁, 인사 운영이 국정의 핵심 업무였습니다. 그가 이조판서로 있을 때였습니다. 친척이 인사 청탁을 하자 선생은 인사추천명단, 이른바 인재풀에서 그 친척을 단호하게 배제했습니다. 그는 인사 추천에 잘못이 드러나면 “내가 임금님을 속였다.”고 자책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율곡 선생은 그런 청련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공정한 마음은 비할 사람이 없다. 사람들이 그의 청렴함에 감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공명정대한 사생은 21세기 오늘의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백리의 표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주자학의 시대입니다. 청련공 이후백 선생은 명분을 현실에 맞게 불편부당한 자세로 구현한 실천하는 이론가였습니다. 그는 그런 관점과 태도를 그 시대의 정치 파쟁, 서인 기호학과와 남인 영남학파의 당쟁을 완화, 화합시키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그런 법과 원칙의 엄격한 실행은 그가 함경도 관찰사 시절에도 적용했습니다. 그 시절 이순신 장군이 처음 관직을 받아 함경도로 부임했습니다. 일부 역사학계에서는 두 분이 만났을 것이며, 이후백 선생의 파사현정의 처신이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영웅적 면모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추론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만남이 있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저의 역사적 감수성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대는 글의 시대였습니다. 청련, 푸른 연꽃입니다. 그 호는 당나라 시인이 백의 호와 같습니다. 이후백 선생이 이태백의 시를 능가하려는 담대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시에 정통한 문장가로 그의 글은 예술혼을 일으키는 구도자적 면모가 드러납니다. 선생의 글은 후대 정조대왕의 문집 <홍재전서>에도 뛰어난 문장으로 이름난 관료로 거론됩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은 명백하고 통쾌한 문장으로 의지와 기개의 감동을 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후백 선생님의 드라마는 모범과 교훈으로 5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그것은 관료 리더십의 정신적 롤모델이 되고 있고, 그의 학문적 글들은 인문학적 상상력을 생산합니다. 이후백 선생의 영혼을 인문적, 역사학적, 인간적으로 실감나고 흥미롭게 매력적으로 드러나게 해주신 모든 연구자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학술대회가 젊은 세대에게 청련 이후백의 삶에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대회를 주관하신 한국계보연구회 김학수 회장님, 연안이씨 청련공파도문회 이철진 회장님, 다산 연구소 박석무 이사장님, 도산서원 김병일 원장님, 그리고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님께도 감사드립니다.